

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

2024. 2.

< 조사개요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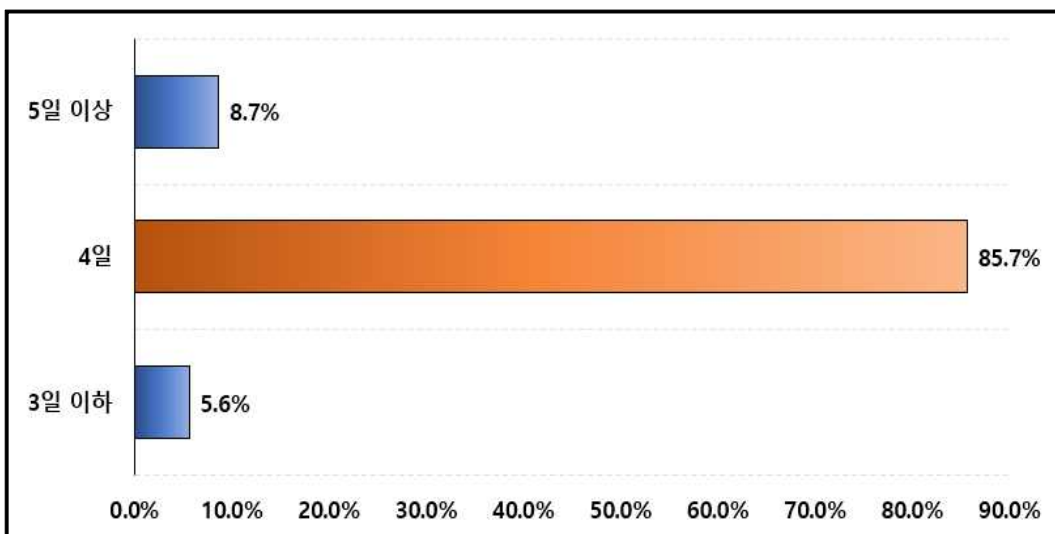
※ 「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」는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)가 전국 5인 이상 715개 기업(응답 기업 기준)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임.

1 올해 설 휴무 실시 기업의 85.7%, 「4일 휴무」

- (설 휴무일수) 올해 설 연휴는 설 공휴일 3일(2.9~11)과 대체공휴일(2.12)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85.7%가 '4일'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※ 응답 기업의 96.6%가 올해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변

< 그림 1. 2024년 설 휴무일수 분포 >



주 : 올해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(691개사)의 휴무일수 분포

- '3일 이하' 휴무하는 기업은 5.6%로 나타났으며, 이 기업들은 그 이유로 '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, 납기 준수 및 매장 운영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'(52.9%)를 가장 많이 응답함.

※ 그 외 응답은 '기타' 41.2%, '일감이 많아서' 5.9% 순

- 일반적인 휴일인 4일을 초과해 '5일 이상' 휴무하는 기업은 8.7%로 나타났으며, 이 기업들은 그 이유로 '일감이나 비용 문제보다도 단체협약,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'(67.4%)를 가장 많이 응답함.

※ 그 외 응답은 '연차휴가 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' 15.2%, '일감 부족 등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' 8.7%, '기타' 8.7% 순

- 규모별로는 '5일 이상 휴무'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(16.7%)이 300인 미만 기업(7.6%)보다 높았고, '3일 이하 휴무'라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(6.0%)과 300인 미만 기업(5.6%)이 유사하게 나타남.

< 표 1. 기업 규모별 설 휴무일수 분포 >

구분	3일 이하	4일	5일 이상
전체	5.6%	85.7%	8.7%
300인 이상	6.0%	77.4%	16.7%
300인 미만	5.6%	86.8%	7.6%

주 : 올해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(691개사)의 휴무일수 분포

2

응답 기업의 66.2%, 올해 설 상여금 지급**설 상여금 지급기업 비중은 전년대비 0.8%p 감소**

- (설 상여금 지급 여부)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6.2%로 지난해(67.0%)에 비해 0.8%p 감소. 또한,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보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.
- 기업 규모별로는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(75.9%)이 300인 미만 기업(64.8%)보다 11.1%p 높게 나타남.
 -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은 설 상여금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가 많은 반면, 300인 미만 기업은 경기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됨.
 - 한편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.1%p 증가했고, 300인 미만 기업은 1.1%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.

< 표 2. 기업 규모별 설 상여금 지급 비중 >

구분	2023(A)	2024(B)	B-A
전체	67.0%	66.2%	△0.8%p
300인 이상	74.7%	75.9%	+1.1%p
300인 미만	66.0%	64.8%	△1.1%p

- 지난해 설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'기업 지불여력 악화'라는 응답이 69.2%로 가장 많았음.
 - 이외에는 '지불여력은 있으나, 단체협약·취업규칙 개정 등으로 지급 명목 삭제' 7.7%, '기타' 23.1%로 나타남.

3

설 상여금 지급방식 「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」 64.3% 설 별도상여금 「작년보다 많이 지급」 7.4%에 그쳐

□ 설 상여금 지급방식은 ‘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’(64.3%)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, ‘별도상여금*만 지급’(31.2%),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’(4.5%) 순으로 조사됨.

* 별도상여금 : 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아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

○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64.3%가 정기상여금 형태로만 지급
-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’(4.5%)의 비중을 포함하면,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68.8%가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

○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정기상여금 형식*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95.4%(90.9%+4.5%)로 300인 미만 64.3% (59.8%+4.5%)보다 31.1%p 더 높았음. 반면, 별도상여금**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 40.1%(35.6%+4.5%)로 300인 이상 9.0%(4.5%+4.5%)보다 31.1%p 더 높게 나타남.

* ‘정기상여금만 지급’ +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’

** ‘별도상여금만 지급’ + ‘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’

< 표 3. 2024년 기업 규모별 설 상여금 지급방식 >

구 분	전체	규모별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
정기상여금만 지급	64.3%	90.9%	59.8%
별도상여금만 지급	31.2%	4.5%	35.6%
정기상여금 및 별도 상여금 동시 지급	4.5%	4.5%	4.5%

주 :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(470개사) 중 설 상여금 지급방식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(462개사)을 대상으로 분석

□ **(별도 설 상여금 지급수준)** 별도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'지급 수준'을 묻는 설문에서는 '작년과 비슷한 수준'이라는 응답이 88.3%로 가장 높았고, '작년보다 적게 지급'은 4.3% '작년보다 많이 지급'은 7.4%에 불과.

○ 기업 규모별로는, 별도 설 상여금을 '작년보다 많이 지급'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이상(33.3%)이 300인 미만(6.4%)보다 높았던 반면, '작년보다 적게 지급'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(4.5%)이 300인 이상(0.0%)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.

< 표 4. 기업 규모별 별도 설 상여금 지급수준 >

구분		작년보다 많이 지급	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	작년보다 적게 지급
전체		7.4%	88.3%	4.3%
규모별	300인 이상	33.3%	66.7%	0.0%
	300인 미만	6.4%	89.1%	4.5%

주 :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별도 설 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의 응답 결과

4

응답 기업의 50.0%, 「올해 설 경기 전년보다 악화」 「개선되었다」는 기업 비중은 5.8%에 불과

□ (설 경기상황 평가) 응답 기업의 50.0%*가 올해 설 경기상황(1월 기준)에 대해 '전년보다 악화되었다'라고 응답함.

* '매우 악화' 7.4% + '악화' 42.6% = 50.0%

○ 그 외 '전년과 비슷한 수준'이라는 응답은 44.3%로 나타났고, '전년보다 개선되었다'는 응답은 5.8%*에 불과했음.

* '매우 개선' 0.7% + '개선' 5.1% = 5.8%

○ 기업 규모별로는, 설 경기가 '전년보다 악화되었다'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.

- '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(50.6%)이 300인 이상 기업(45.2%)보다 5.4%p 높게 나타남.

< 표 5. 기업 규모별 올해 설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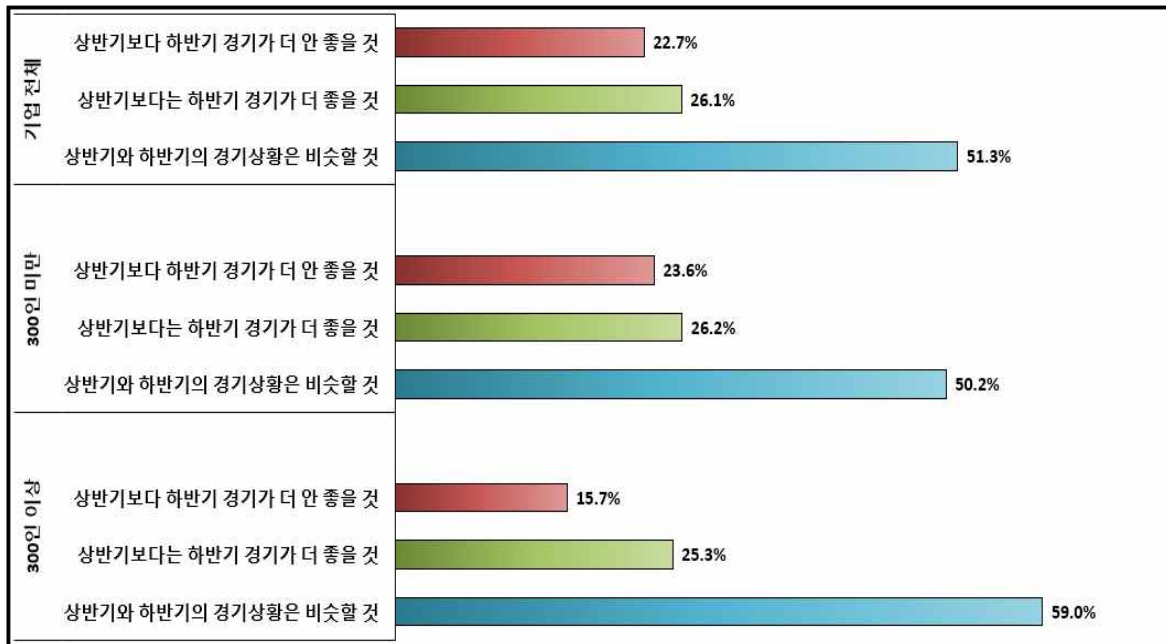
구분	전년보다 악화		전년과 비슷	전년보다 개선			
	매우 악화	악화		개선	매우 개선		
전체	7.4%	42.6%	50.0%	44.3%	5.1%	0.7%	5.8%
300인 이상	4.8%	40.5%	45.2%	48.8%	6.0%	-	6.0%
300인 미만	7.7%	42.9%	50.6%	43.7%	5.0%	0.8%	5.8%

주 : 응답 기업(715개사) 중 올해 설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(707개사)을 대상으로 분석

응답 기업의 51.3%,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 “비슷할 것”

- (상반기, 하반기 경기상황 전망) 응답 기업의 51.3%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「비슷할 것」으로 전망.
-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서 응답 기업의 51.3%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상황이 “비슷할 것”으로 전망. 올해 “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”이라는 응답은 26.1%, “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”이라는 응답은 22.7%로 나타남.
- 기업 규모별로는, “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더 좋을 것”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(26.2%)과 300인 이상(25.3%)이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, “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더 안 좋을 것”이라는 응답은 300인 미만(23.6%)과 300인 이상(15.7%)이 크게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남.

< 그림 2. 올해 상반기,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한 전망 >



주 : 응답 기업(715개사) 중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경기상황을 비교하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(710개사)을 대상으로 분석

6

올해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

「경기침체에 따른 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」(57.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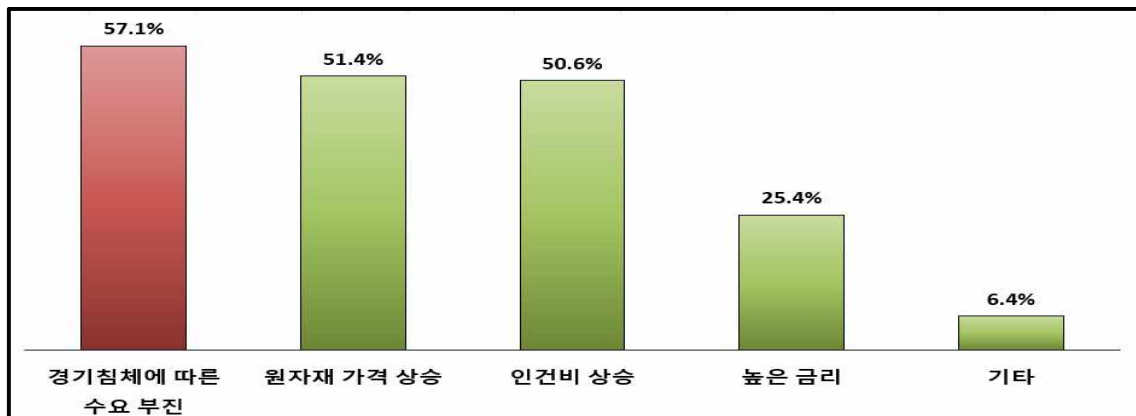
- (2024년 실적 달성 부담 요인) 2024년 기업의 영업실적에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‘경기침체에 따른 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7.1%에 달했음.
- 그 다음으로는 ‘원자재 가격 상승’(51.4%), ‘인건비 상승’(50.6%), ‘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’(25.4%) 등 순으로 나타남.
 -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, ‘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’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(64.6%)이 300인 미만 기업(56.1%)보다 8.5%p 높았으나, ‘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’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(26.3%)이 300인 이상 기업(18.3%)보다 8.0%p 높게 나타나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. ‘원자재 가격 상승과 ‘인건비 상승’이라는 응답은 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.

< 표 6. 2024년 기업 규모별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 >

실적 달성 부담 요인	기업 전체	300인 이상	300인 미만
경기침체에 따른 제품(서비스) 수요 부진	57.1%	64.6%	56.1%
원자재 가격 상승	51.4%	51.2%	51.4%
인건비 상승	50.6%	51.2%	50.5%
높은 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	25.4%	18.3%	26.3%
기타	6.4%	9.8%	5.9%

주 : 1) 2개 복수응답 가능,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
2) 응답 기업(715개사) 중 올해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(706개사) 대상으로 분석

< 그림 3. 2024년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 >



주 : 1) 2개 복수응답 가능,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
2) 응답 기업(715개사) 중 올해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을 묻는 설문에 응답한 기업(706개사) 대상으로 분석

조사 개요

1. 조사목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「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」는 기업의 설 휴무 계획과 상여금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개별기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

2. 분석대상

한국경영자총협회의 회원사를 포함한 전국 5인 이상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715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.

3. 조사기간 : 2024년 1월 22일 ~ 1월 26일 < 5일간 >

4. 조사방법

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,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였음.

5. 조사내용

- (1) 설 휴무일수
- (2) 설 상여금 지급 여부
- (3) 설 상여금 지급 방식
- (4)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
- (5) 상반기, 하반기 경기상황 전망
- (6) 올해 영업실적 달성 부담 요인

6. 회수업체 수

구분	전체	기업 규모별	
		300인 이상	300인 미만
회수업체 수	715개사 (100.0%)	87개사 (12.2%)	628개사 (87.8%)